

## 간호대학 여학생의 체형인식과 취업불안 관계에서 외모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정효선\*·권연숙\*\*·최연희\*\*\*†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구미대학교 간호학과,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간호과학연구소

### Mediating Effects of Self-appearance 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igure Cognition and Vocational Anxiety in Female Nursing Students

Hyo Sun Jung\*·Youn Suk Kwon\*\*·Yeon Hee Choi\*\*\*†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Nursing, GuMi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the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Objectives:** This research intends to comprehend the relation of figure cognition, self-esteem and vocational anxiety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then, test the mediator effect of self appearance esteem in the relation of vocational anxiety and figure cognition.

**Methods:** This research conducted a survey targeting 240 female university students in their senior years in 3 nursing universities with 4-year curriculum. The collected data is from the average and the SPSS / WIN 21.0 calculated standard deviation. The analyzed correlation was used to route using model AMOS 20.0.

**Results:** As a result of conducting the Sobel Test, that figure cognition affects vocational anxiety, mediating and self appearance esteem, vocational anxiety was shown to have decreasing mediation effect (-3.827,  $p < 0.001$ ).

**Conclusions:** The Anxiety of Nursing Students at Work requires developing an intervention program for improving the appearance, self-esteem and positive body awareness.

**Key words:** Figure Cognition, Self-appearance Esteem, Vocational Anxiety

\* 이 논문은 2016년도 경북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접수일 : 2016년 10월 21일, 수정일 : 2017년 3월 9일, 채택일 : 2017년 4월 30일

교신저자 : 최연희(41944, 대구광역시 중구 국제보상로 680)

Tel: 053-420-4926 Fax: 053-421-2758 E-mail: yeonhee Choi@naver.com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현대 사회에서 상업주의와 미디어의 영향으로 인간의 가치를 판단하는데 있어 그 기준을 외모에 두는 외모지상주의는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모지상주의를 개인 각자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현실에서는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을 의식하게 되고 사회적 시선을 무시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들이 추구하는 외모를 개인도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모가 뛰어난 사람들에게 호감을 느끼며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첫인상부터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외모가 후광이 되어 같은 일을 해도 외모가 뛰어난 사람에게 더 좋은 평가가 내려진다. 사람들은 자신과 타인들의 관점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임으로써 타인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 혹은 자아 만족을 얻기 위해서 바람직한 인상을 창조하려고 노력하고(Schlenker, 1980), 남녀 모두의 화장 및 피부관리, 신체성형 등의 외모관리 행동은 본능적인 동기라기보다 21세기 '외모지상주의' 사회문화적 현상으로 인식한 사회·심리학적 동기가 크게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었다(서화숙과 송성자, 2004).

이러한 사회 풍조는 대학생의 취업에 대한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그에 따라 면접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취업을 위한 외모관리의 필요성 및 중요성이 강조되고 적합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조미경 등, 2013). 실제 면접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를 보면 면접에서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지원자의 외적 이미지 즉 머리모양과 메이크업이 선택되었으며(김혜리, 2009), 신미정(2007)의 연구결과에서는 남성 면접관이 여성 지원자를 평가할 때 면접 결정요인에 업무수행능력 다음으로 중요한 항목이 깔끔한 인상과 단정한 외모로 나타났고, 면접관이 생각하

는 긍정적인 선발 이미지에 호감 가는 외모를 가진 첫인상이 포함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진서현, 2010). 취업을 목표로 하는 20대 취업준비생 218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 이미지 관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면접경험이 있는 124명 중 104명(84%)이 면접 전 좋은 이미지를 갖기 위해 외모관리에 시간을 투자했다고 답했다. 결과적으로 외모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라고 여김에 따라, 취업준비생들은 헬스, 피부관리, 미용성형, 다이어트 등을 통한 외모관리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외모관리는 멋이 아니라 생활의 필수요소로 용모가 인생의 성패에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하고 있다(윤소영, 2007). 실제로 대학 신입생의 외모에 대한 인식 및 미용성형 수술 실태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미용성형수술을 하였거나 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323명 중 41명(12.7%)에서 '취직을 위해서'라고 하여 외적 이미지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이관 등, 2006). 심지어 실제 보다 자신의 체형이 과체중인 것으로 인지하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황라일, 2012). 외모는 현대인에게 취업, 승진, 전반적인 사회생활 등에 많은 영향을 끼쳐 오늘날 사람들이 외모를 가꾸는데 있어 적지 않은 노력과 시간을 기울이게 되는 중요한 경쟁력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는 현실이다.

바람직한 체형인식은 자아 개념을 형성하며 지위를 획득하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김지연 등, 2009), 체형인식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 경우 불안감과 자신감의 결여, 자아 존중감의 상실 등 사회 심리적 문제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지연 등, 2009). 여러 종류의 외모관리행동은 사회적 기준안에서 자신의 외모를 평가하고 이상적인 신체 모습과의 차이를 좁혀 나감으로써 자신을 변화시키고 향상시키는 동기가 된다고 하였다(Kaiser, 1997). 따라서 더는 타고난 미모가 아름다운 외모가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관리되고 만들어질 수 있는 것으로 신

체적 외모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자신의 외모에 대한 관심 정도에 따라 외모를 변화시키고 아름답게 가꾸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다.

아름다움과 같은 외적인 건강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인지적이고 정서적인 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이경림, 2007), 자기관리의 핵심에는 외모관리가 포함되며, 외모에 얼마나 만족하는가는 자아존중감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강영숙과 박현정, 2009). 여성들은 날씬하고 젊은 외모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외모관리를 실행할 수 있으며, 이상적인 외모를 위한 노력은 자아존중감을 상승시키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았고, 자아존중감의 차이가 외모 관리 행동의 차이로 변환될 수 있다고 여겼다(Lennon 등, 1999). 또한, 현대 사회에서 여성은 본인의 만족감과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 외모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정수, 2014). 자아존중감이 중요한 이유는 우울과 자아존중감이 유의한 역상관 관계(이순희와 김신정, 2012)가 있기 때문이며, 높은 자아존중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반면, 낮은 자아존중감을 느끼는 사람들을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 자아존중감이 동기적 요소를 갖는다고 보았다(Elliot, 1986). 건강한 심리적 기능을 위해 어느 정도의 자아존중감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외모관리는 이와 유사한 기능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aiser, 1997). 따라서 자신의 신체 이미지를 인식하고 평가하는 행위는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며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외모관리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현상들은 취업을 앞둔 간호대학 여학생이 자신의 신체와 외모에 자신이 없을 때 취업에 대한 불안이 더욱 증가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미경 등, 2013).

병원도 서비스업종이라 여겨지는 현대사회에서 이제 간호사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능력을 개발시켜야 함은 물론 환

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자로서 특정한 감정이나 행동 양태, 적절한 외양까지도 갖추어야 한다. 적절한 외양 즉, 매력적인 외모는 후광효과(halo effect)로 인하여 매력과는 상관없는 다른 특성에도 긍정적인 지각을 일으킨다(Schaller, 199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모와 체형에 관심이 많은 대구광역시 4년제 간호대학 3개교 대학 4학년 여학생 240명을 대상으로 하여 체형인식, 외모자아존중감, 취업불안 척도를 사용하여 체형인식과 취업불안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체형인식과 취업불안과의 관계에서 외모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를 파악하여 체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형성되도록 돕고, 나아가 간호대학 여학생의 취업불안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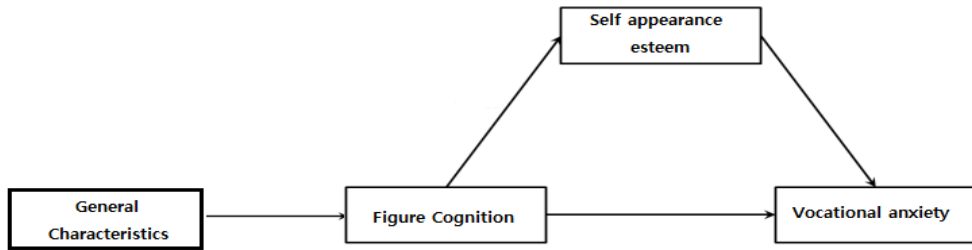
## II.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편의추출에 의해 대구광역시 소재 간호대학 3개교 4학년 여학생을 임의표집한 240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총 2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탈락율 0.6%로 231부 회수되어 분석하였다.

### 2. 연구의 틀

본 연구에서는 체형인식이 외모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과 체형인식이 취업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외모자아존중감이 취업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또한 체형인식과 취업불안과의 관계에서 외모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파악하였다(Figure 1).



[Figure 1] Frame of Study

### 3. 연구가설

본 연구를 통해 검증하기 위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대학생이 지각하는 체형인식이 긍정적으로 높을수록 외모자아존중감은 증가 할 것이다.
- 2) 간호대학생이 지각하는 체형인식이 긍정적으로 높을수록 취업불안은 낮을 것이다.
- 3) 간호대학생의 외모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취업불안은 낮을 것이다.
- 4) 간호대학생이 지각하는 체형인식이 외모자아존중감을 매개하여 취업불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4. 연구도구

#### 1) 체형 인식도

체형인식은 Cooper 등(1986)이 체중이나 체형에 관한 관심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개발한 BSQ(Body Shape Questionnaire)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BSQ는 이상적 체중으로 인한 현재 체중의 왜곡에 기인한 부정적 정서로 인해 발생하는 상황을 묘사하는 질문들로 총 3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도구는 비만의 두려움 21문항, 음식섭식태도 4문항, 체형 지각정도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6점 Likert 척도로 부정문항은 역산처리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체형에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의 Cronbach α계수는 0.97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α계수는 0.83이었다.

#### 2) 외모 자아존중감

외모 자아존중감은 김희화와 김정연(1999)이 개발한 외모 자아존중감(Appearance self-esteem, ASE) 척도를 대학생의 특성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신체외모에 관한 자아 7문항, 신체능력에 관한 자아 3문항의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 척도로 부정문항은 역산처리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외모자아존중감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Cronbach α계수는 0.77였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α계수는 0.70이었다.

#### 3) 취업불안

취업불안은 조규관(2008)이 개발한 취업불안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취업불안 상태 10문항, 취업불안 유발상황 11문항, 취업불안 유발요인 7문항으로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 척도로 부정문항은 역산처리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취업불안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Cronbach α계수는 0.95였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α계수는 0.93이었다.

### 5. 윤리적 고려 및 자료수집

본 연구를 시행하기에 앞서 경북대학교 의료연

구윤리심의위원회(IRB)의 승인(KNU2015-15)을 받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5년 3월 16일부터 4월 24일까지이고, 대상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 및 취지와 연구 참여의 위험과 이득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연구에 참여하겠다는 서면동의를 받은 후 설문지를 배부하고, 대상자가 직접 기입하게 한 후 회수하였다. 설문지의 작성 소요 시간은 약 10~15분 소요되었다.

## 6. 자료분석

본 연구는 간호대학 여학생의 체형인식, 외모자아존중감 및 취업불안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체형인식과 취업불안의 관계에서 외모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함이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고 측정도구인 체형인식, 외모자아존중감, 취업불안 은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체형인식, 외모자아존중감, 취업불안 정도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다. 외모자아

존중을 매개하는 체형인식과 취업불안의 매개효과는 AMOS 20.0을 이용하여 경로분석을 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RMSEA, RMR, GFI, CFI, NFI를 사용하였다. 서로 포함관계에 있는 모형을 비교하기 위해  $\chi^2$  차이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모형의 매개효과 크기를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 Ⅲ. 연구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분포는 경제수준이 중인 경우가 186명(80.5%)으로 가장 많았고 상이 37명(16.0%)이었다. 종교는 169명(73.2%)가 있었으며, 학교생활의 만족도에서는 107명(46.3%)이 만족하였고 102명(44.2%)이 불만이였다. 학업성적은 149명(64.5%)이 중으로 가장 많았으며 55명(23.8%)이 하로 응답하였다.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경우는 139명(60.2%) 이였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s	n	%
(N=231)		
Economic Level		
High	37	16.0
Medium	186	80.5
Low	8	3.5
Religion		
yes	169	73.2
no	62	26.8
School Life		
Good	22	9.5
Fair	107	46.3
Poor	102	44.2

Variables	n	%
School achievement		
Top	27	11.7
Middle	149	64.5
Low	55	23.8
Club		
yes	139	60.2
no	92	39.8

**2. 대상자의 체형인식, 외모자아존중감, 취업불안의 분포**

대상자의 체형인식, 외모자아존중감, 취업불안의 분포는 체형인식은 6점 Likert 척도인 총 34문항으로 대상자의 분포는 최소값이 1.00점, 최대값이

2.61점, 그리고 평균값이 2.18점이었다. 외모자아존중감은 5점 Likert 척도인 총 10문항으로 대상자의 분포는 최소값이 1.00점, 최대값이 4.57점, 그리고 평균값이 3.13점이었다. 취업불안은 5점 Likert 척도인 총 28문항으로 대상자의 분포는 최소값이 1.12점, 최대값이 4.53점, 평균값이 2.87점이었다(Table 2).

<Table 2> Distribution of variables

Variable	N	Min	Max	M	S.D.
Figure cognition	231	1.00	2.61	2.18	0.34
Self appearance esteem	231	1.00	4.57	3.13	0.63
Vocational anxiety	231	1.12	4.53	2.87	0.69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체형인식, 외모자아존중감, 취업불안의 차이**

본 연구에서 체형인식은 학교생활 만족도가 하인 경우 평균 2.29±0.33로 상의 평균인 2.08±0.45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14.169, p=0.000). 학업성적은 중이 평균 2.24±0.30으로 상의 평균인 1.98±0.32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13.163, p=0.000). 즉, 학교생활 만족도가 하인 경우와 학업성적이 중인 경우 자신의 체형인식에 긍정적이었

다. 외모자아존중감은 경제적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t=6.336, p=0.002), 학교생활 만족도가 하인 평균 3.31±0.67로 상의 평균인 2.64±0.61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t=15.350, p=0.000), 학업성적은 중이 평균 3.19±0.62으로 하의 평균인 2.85±0.58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6.336, p=0.002). 취업불안은 종교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172, p=0.864)(Table 3).

<Table 3> Figure cognition, self appearance esteem, vocational anxiet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31)

Variables		Figure cognition					Self appearance esteem					Vocational anxiety				
		N	M	S.D.	t/F	p	N	M	S.D.	t/F	p	N	M	S.D.	t/F	p
Economic Level	High	37	2.04	0.41	2.519	.083	37	2.95	0.69	6.336	.002	37	3.43	0.91	4.411	.013
	Medium	186	2.17	0.35			149	3.19	0.62			149	3.02	0.82		
	Low	8	2.27	0.17			8	2.85	0.58			8	3.41	1.06		
Religion	yes		169	2.18	0.37	1.654	169	3.08	0.67	.021	.983	169	3.10	0.86	.172	.864
	no		62	2.09	0.32		62	3.08	0.53			62	3.08	0.85		
School Life	Good	22	2.08	0.45	14.169	.000	22	2.64	0.61	15.350	.000	22	3.88	0.88	26.128	.000
	Fair	107	2.04	0.33			107	2.95	0.52			107	3.29	0.82		
	Poor	102	2.29	0.33			102	3.31	0.67			102	2.73	0.69		
School achievement	Top	27	1.98	0.32	13.163	.000	27	2.95	0.69	6.336	.002	27	3.15	0.74	37.233	.000
	Middle	149	2.24	0.30			149	3.19	0.62			149	2.82	0.66		
	Low	55	2.01	0.44			55	2.85	0.58			55	3.83	0.94		
Club	yes		139	2.19	0.36	1.984	139	3.15	0.67	1.953	.052	139	2.95	0.81	-3.295	.001
	no		92	2.10	0.35		92	2.98	0.58			92	3.32	0.87		
Total		231	2.15	0.36			231	3.08	0.64			231	3.10	0.85		

#### 4. 대상자의 체형인식, 외모자아존중감, 취업불안의 상관관계

체형인식, 외모자아존중, 취업불안의 상관관계에서 체형인식과 외모자아존중의 상관계수는 0.366( $p < 0.001$ )로 유의한 정의 상관성을 나타내어 체형인식이 긍정적으로 높아질수록 외모자아존중은 비례하여 높아지는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체형인식과 취업불안

의 상관계수는  $-0.343(p < 0.001)$ 로 유의한 역의 상관성을 나타내어 체형인식이 긍정적으로 높아질수록, 취업불안은 반비례하여 낮아지는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외모자아존중과 취업불안의 상관계수는  $-0.278(p < 0.001)$ 로 유의한 역의 상관성을 나타내어 외모자아존중이 긍정적으로 높아질수록, 취업불안은 반비례하여 낮아지는 관련성을 나타내었다(Table 4).

<Table 4> Correlation of figure cognition, self appearance esteem, vocational anxiety

Variables	Figure cognition	Self appearance esteem	Vocational anxiety
Figure cognition	1		
Self appearance esteem	.366***	1	
Vocational anxiety	-.343***	-.278***	1

### 5. 외모자아존중을 매개하는 체형인식과 취업불안의 경로분석

외모자아존중을 매개하는 체형인식과 취업불안에 대한 경로분석을 시행한 결과, 본 모형의 적합도에 관해서는 RMSEA=0.208, RMR=0.052, GFI=0.904, CFI=0.998, NFI=0.994,  $\chi^2=9.716$ ( $p<0.001$ )로 적절한 모형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체형인식은 긍정적으로 높아질수록 외모자아존중이 증가하는 0.287의 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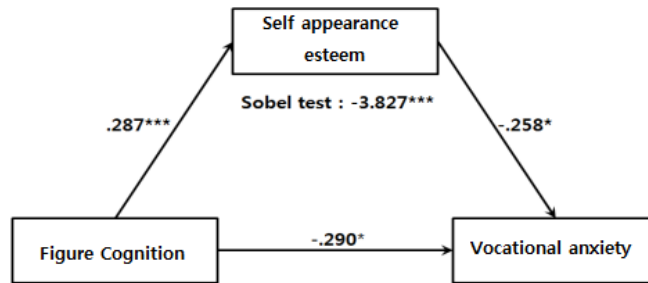
한 영향을 주었다( $p<0.001$ ). 체형인식은 긍정적으로 높아질수록 취업불안이 감소하는 -0.290의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p<0.05$ ). 외모자아존중은 긍정적으로 높아질수록 취업불안이 감소하는 -0.258의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p<0.05$ ). 체형인식이 외모자아존중을 매개하여 취업불안에 영향을 주는 것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시행한 결과 -3.827 취업불안이 감소하는 매개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01$ )(Figure 2, Table 5).

<Table 5> Path analysis of model

Path way	Estimate	S.E.	C.R.	p
Figure cognition → Self appearance esteem	.287	.075	3.816	<.001
Figure cognition → Vocational anxiety	-.290	.119	-2.427	.015
Self appearance esteem → Vocational anxiety	-.258	.108	-2.389	.017

RMSEA=.208, RMR=.052, GFI=.904, CFI=.998, NFI=.994,  $\chi^2=9.716$ ,  $p<0.001$

Sobel test : Estimated=-3.827, S.E.=19.350,  $p<.001$



[Figure 2] Path model of three variables

## IV. 논의

본 연구는 외모와 체형에 관심이 많은 여대생 중 간호대학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체형인식, 외모자아존중감, 취업불안 척도를 조사하여 체형인식과 취업불안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체형인식과 취업불안과의 관계에서 외모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소재 간호대학 3개

교 4학년 여학생 231명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본 연구결과 체형인식은 평균 2.18점으로 자신의 체형에 대하여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자신의 체형에 대한 인식이 표준체중군의 73.5%가 과체중으로 인식하고 있어 자신의 체형을 왜곡하여 잘못 인식하고 있는 김진희(2011)의 연구결과와, 정상체중군의 61.5%가 주관적으로 자신의 체형을 살찐 체형으로 인식하여 체형 만족도가 낮은 김



지연 등(2009)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외모지상주의의 사회현상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마른체형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 여학생의 체형인식과 외모자아존중의 상관계수는 0.366로 체형인식이 긍정적으로 높아질수록, 외모자아존중은 비례하여 높아지는 관련성을 나타내어 신체상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노주희 등(2014)의 연구결과와, 자기효능감 중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은 외모관리행동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이소희 등(2011)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였다. 신체적 특성을 들어 비하하는 용어를 듣는 경우 심한 모욕감을 느끼게 되는 것은 신체 불만족이 자아개념의 또 다른 요소인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이관 등, 2006) 결과와도 유사하다. 이는 자신에 관해 긍정적으로 느끼는 정도를 나타내는 자아존중감이 클수록 신체상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외모관리행동이 커질것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 여학생의 체형인식과 취업불안의 상관계수는 -0.343로 유의한 역의 상관성을 나타내어 체형인식이 긍정적으로 높아질수록, 취업불안은 반비례하여 낮아지는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이는 체형인식이 긍정적으로 높아질수록, 취업불안은 반비례하여 낮아진다는 관련성을 나타내어, 외모비중이 높다고 인지할수록 취업불안이 높다는 연구결과(조미경 등, 2013)와 유사하였다. 급변하는 사회속에서 청년들의 취업난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미래산업 경쟁력이 불안한 현실이다. 교양 및 전공지식을 쌓고 외국어 능력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상황속에서 외모지상주의와 같은 사회현상은 취업스트레스를 악화시킬것이므로 다양성을 인정하고 배려와 이해를 통한 외모지상주의의 해결방안이 절실하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외모자아존중과 취업불안의 상관계수는 -0.278로 유의한 역의 상관성을 나타내어 외모자아존중이 긍정적으로 높아질수록,

취업불안은 반비례하여 낮아지는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외모자아존중이 긍정적으로 높아질수록, 취업불안은 반비례하여 낮아지는 관련성을 나타내어 자아존중감과 취업불안이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조미경 등(2013)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에 있어 면접 시 외모에 대한 평가로 취업유무가 좌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지며, 관련된 선행연구인 취업 면접평가의 중요한 기준에 지원자의 용모가 해당되며, 외모관리에 대한 스트레스가 취업 불안으로 이어진다는 신미정(2007)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본 연구의 외모자아존중감을 매개하는 체형인식과 취업불안에 대한 경로분석을 시행한 결과 체형인식은 긍정적으로 높아질수록 외모자아존중이 증가하는 0.287의 유의한 영향을 주었고, 취업불안이 감소하는 -0.290의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외모자아존중은 긍정적으로 높아질수록 취업불안이 감소하는 -0.258의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체형인식이 외모자아존중을 매개하여 취업불안에 영향을 주는 것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시행한 결과 -3.827취업불안이 감소하는 매개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는 신체에 대한 이미지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Davidson과 McCade, 2005), 외모비중이 높다고 인지할수록 취업불안이 높다고 하였으며(조미경 등, 2013), 자아존중은 취업스트레스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신선행, 2012)이라고 보고하였다. 이는 체형인식에 영향을 받는 외모자아존중이 취업불안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외모자아존중은 간호대학 여학생의 체형인식과 함께 취업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간호대학 여학생의 체형인식과 취업불안과의 관계에서 외모자아존중감이 매개역할을 하여, 체형인식이 취업불안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서도 체형인식에 대한 외모자아존중감 향상을 통하여 취업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긍

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 4년제 간호대학 3개교 대학 4학년 여대생을 전수조사로서 23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고, 조사기간은 2015년 3월 16일부터 4월 24일까지였다. 체형인식, 외모자아존중감, 취업불안 척도를 조사하여 체형인식과 취업불안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체형인식과 취업불안과의 관계에서 외모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체형인식, 외모자아존중감, 취업불안의 세 변수간에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체형인식과 취업불안과의 관계에서 외모자아존중감은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본 연구는 간호대학 여학생의 취업불안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 중에서 체형인식과 외모자아존중감을 중심으로 하여 체형인식과 취업불안의 관계에서 외모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 여학생의 체형인식과 취업불안의 관계에 있어서 외모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가 있음을 검증함으로써 향후 간호대학 여학생의 취업불안 감소를 위한 중재를 개발하는 데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 여학생의 취업불안 감소를 위한 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할 때, 단순히 체형인식에 대한 중재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체형인식에 대한 적절한 사정과 긍정적인 체형인식을 갖도록 하는 내용과 더불어 외모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중재를 함께 포함하여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간호대학 여학생이 자신의 체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형성되도록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을 한 지역의 간호대학 4학년 여학생으로 편의 추출 선정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전체 간호대학

여학생 집단에게 일반화 하는 데에 제한점이 있으나, 취업준비에 직면한 대구지역 4학년 간호대학 여학생을 전수조사 한 점에 의의가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체형인식과 외모자아존중감 향상의 내용이 포함된 중재를 개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적용하여 취업불안 감소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를 제언하고,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학년, 성별에 따라 대상자를 무작위로 추출한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 참고문헌

1. 강영숙, 박현정. 뷰티살롱 고객의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신체이미지와 자아존중감의 영향관계. 한국미용학회지 2009;15(1):363-373.
2. 김정수. 심미적 치료를 적용한 여대생의 외모관리 경험.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014;28(2):359-371.
3. 김지연, 손세진, 이지은, 김정현, 정인경. 여자 중학생들의 체형 만족도에 따른 비판 스트레스, 체중 조절 태도, 식이장애 정도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2009;47(4):49-59.
4. 김진희. 20-30대 성인여성영 주관적 체형인식이 비만스트레스, 체중조절행동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서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2011
5. 김혜리. 취업지원자의 외적 이미지가 면접관의 평가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청양: 국제문화대학원 대학교, 2009.
6. 김희화, 김정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성별차이와 발달적 변화. 대한가정학회지 1999;37(5): 1-18.
7. 노주희 외 10명. 여대생의 신체상 만족도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한국학교보건학회지 2014;27(3):196-202.
8. 서화숙, 송정자. 여대생의 신체적 특성에 따른 신체만족도 및 의복만족도,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2004;6(3):329-335.
9. 신미정. 취업면접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석사학

- 위논문].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7.
10. 신선행. 일부 보건계열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치위생과학회지* 2012;12(3):217-225.
  11. 윤소영. 여대생의 외모관리에 대한 의식 및 태도 연구: 헤어, 피부, 화장, 미용성형을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 대전: 한남대학교 대학원, 2007.
  12. 이관, 임현술, 장경순. 대학 신입생의 외모에 대한 인식 및 미용성형 수술 실태. *동국의학* 2006;13(1):27-36.
  13. 이경림. 노인의 외적 자기관리를 통한 주관적 행복감에 관한연구[석사학위논문]. 아산: 호서대학교 대학원, 2007.
  14. 이순희, 김신정. 대학생이 지각하는 스트레스와 우울 및 자아존중감.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012; 26(3):453-464.
  15. 이승희, 박길순. 여대생의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에 따른 외모관리행동. *복식문화학회지* 2011;19(5):1075-1087.
  16. 조규관. 취업불안척도의 개발 및 타당도 연구. *한국교육학회지* 2008;46(2):53-75.
  17. 조미경, 최은지, 이지원, 이유나, 채지영.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외모와 취업 스트레스 및 취업불안과의 관계. *간호학의 지평* 2013;10(2):141-150.
  18. 진서현. 취업면접의 Image matching 연구[석사학위논문]. 용인: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2010.
  19. 황라일. 전문대학 간호과 여대생의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요인.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012;26(2):215-226.
  20. Cooper PJ, Taylor MJ, Cooper Z, Fairburn C G.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body shape questionnair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1986;6(4):485-494.
  21. Davison TE, McCabe MP. Relationship between men's and women's body image and their psychological, social, and sexual functioning. *Sex Roles* 2005;52(7-8):463-475.
  22. Elliott GC. Self-esteem and Self Consistency : A Theoretical and empirical link between two primary motivation. *Social Psychology Quarterly* 1986;49(3):207-218.
  23. Kaiser SB.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 Symbolic Appearance in Context* 2nd Rev. ed. of :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c1990. Includes bibliographical references, New York : Macmillan. 1997
  24. Lennon SJ, Rudd NA, Sloan B, Kim JS. Attitudes toward gender roles, self-esteem, and body image, application of a model.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999;17(4): 191-202.
  25. Schaller M. Stereotype Accuracy: Toward Appreciating Group Differences Edited by Yueh-Ting, Lee J. Jussim, Clark R. McCauley. *Political Psychology* 1998;19(3):652-655.
  26. Schlenker BR. *Impression Management: The Self-Concept, Social Ident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 Monterey: Brooks/Cole 1980;10(Aberrant Images):285-303.